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북자치도교육청, 태풍·호우·폭염 등 대비 기관·학교 위험요소 사전 점검·정비... 상황관리전담반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 대응 기간은 태풍·호우는 10월 15일까지, 폭염은 9월 30일까지다.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비상연락망 현행화 △풍수해 예보시 학사일정 조정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학교 점검 △풍수해 피해예방 행동요령 교육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재난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해 비상단계별로 상황에 맞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교육부·교육지원청·각급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상황보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재난단계 경계 이상 시에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재난상황 보고 및 대응을 상황관리전담반으로 일원화 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여름철 재난대비 상황관리를 위해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예방조치와 비상상황시 모든 역량을 가동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홀로그램 체험...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4일 전북미래교육연구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홀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변호사 배치·교권 변호사 늘린다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교사 보호 등 목적... 총 6명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 및 교권 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민원 분쟁 등 복잡한 사건에 휘말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법률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분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권전담변호사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 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5~10일 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전담변호사들의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들의 각종 법률 상담수요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담변호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 사업단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황수연 전통식품 등과
기업 제품 우수성 알리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은 최근 '2024 중국 상하이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4일 사업단에 따르면 이 박람회에 2007년부터 전북에서 발효식품 연구에 전념해 오고 있는 황수연 전통식품, 콜라겐 스틱형 젤리를 생산하는 경북 소재 기업인 ㈜어니스트퍼머와 함께 참가,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4,500여 기업과 1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전북 연고기업인 황수연 전통식품이 2020년부터 2년 간 개발한 검은콩 청국장 분말을 활용한 케이크 등을 홍보해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어니스트퍼머는 이 박람회측에서 제공하는 탑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해 중국 최고의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투안(Meituan)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JD 정동, 24 Express,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탑 바이어들과 만나고, 부스에서는 중국 유통업자부터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 등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이창조 학생(무역학과)은 “처음 박람회에서 기업 수출을 지원해줬는데,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며 “무역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길을 내 손으로 만들어 내는 등 실무 역량을 갖춘 무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탄소중립 환경교육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교육청, 원탁회의 개최... 초·중등 교원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2층 강당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 방안 모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탁회의는 현장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의목공을 활용해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박성근 원장이 강사로 나서 학교의 탄소중립 환경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고, 이어 모둠별로 학교의 탄소중립 교육 형태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원탁회의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가 신청한 초·중등 교원 62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활발한



논의를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모둠별로 참여해 진행을 이끌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참석 교원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효과적인 환경교육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학년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134개 고교 교감 등 300여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도내 134개 고등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및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이날 연수는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고등학교 입학성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4개교와 특성화고(직업, 대안) 28개교 등 총 32개교가, 오후에는 일반고 96개교, 전북올인학교,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과 제외) 4개교, 자사고 1개교 등 총 102개교가 참석해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과 교류를 가졌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생 선택중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2025학년도 입학성 교육과정의 편성과 실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법을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대학운동부 평가·지원사업 선정

4년 연속... 지원금 2700만원
훈련용품·대회 출전 지원에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KUSF(한국대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4 대학운동부평가 및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운동부의 육성 지원과 대학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2,700만원 지원금을 △운동 종목(축구)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 출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체육교육지원팀장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4년 연속 선정은 대학운동부 운영의 안정됨을 입증한 것”이라며 “학생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에 전념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2024 KUSF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 1,200만원 지원금을 확보 및 운동 튜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지방시대에서의 지역 가치 창출'

전주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신규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주관대학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학과·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개, 올해 3개 등 총 8개 사업단이 운영된다.

이에 전주대는 3년간 90억 지원받아 호남권 유일의 주관대학으로 수도권(동국대), 강원권(한림대), 충청권(한남대), 영남권(경북대)의 참여대학들과 함께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 가치 창출'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전주대 컨소시엄은 '지역 가치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과 상생을 선도하는 'Local C-nergy'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앞으로 3년 동안 대학 간 융합·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관대학 사업단장을 맡은 이용욱 교수(한국어문학창작학부)는 “전주대는 혁신과 상생을 가장 잘 해왔고, 또 잘해야 하는 지역대학”이라며 “문화·관광이라는 지역 특화 가치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 가치와 접목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3일 전주고등학교와 창의 인재 양성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고교 협력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전주대, 전주고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3일 전주고등학교(교장 라구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라구한 교장, 소장인 교무부장과, 박진배 총장, 이근호 입학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 등 교육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멘티 지원 △학생 교류를 통한 교육 봉사활동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창업 및 식품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함과 동시에 대학-고교 간 협력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 발전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와 전주고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육학과가 4일 전북장애인체육회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건 왼쪽부터, 조현철 우석대 체육학과장, 조현철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미라 산학협력단 부단장, 에리카 몽골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 장순식 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우석대, 전북장애인체육회·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 등과 협약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육학과가 4일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회·전북자치도장애인태권도협회·몽골장애인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박미라 산학협력단 부단장과 조현철 체육학과장, 조현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순식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활용한 상호 교류 △장애인 스포츠 특기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상호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공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보 및 학술 교류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박미라 부단장은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과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